



## 독서 후 독후활동지\_ ① 어휘력 기르기

※ (1~2) 『돌아와, 귀신고래야!』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1) 다음 각 단어와 그 뜻을 바르게 연결하세요.

① 회화	•	•	㉠ 사람됨이 성실하지 못하고 경망스러우며 추잡한 데가 있다
② 부잡스럽다	•	•	㉡ 물결이나 늘어진 천, 나뭇잎 따위가 부드럽고 느릿하게 자꾸 굽어져 움직이다
③ 몸서리치다	•	•	㉢ 가볍게 자꾸 휘두르거나 휘젓는 모양
④ 너울거리다	•	•	㉣ 흔히 또는 으레 그러는 일. 드물지 아니하게 흔히
⑤ 일쑤	•	•	㉤ 몹시 싫거나 무서워서 몸이 떨리다

2) 밑줄 친 ㉠과 같은 상황을 표현한 문장을 ①~⑤에서 모두 골라 번호를 쓰세요.

“똥 놈의 똥을 저리 많이 누노? 볼 때마다 순 똥질인기라.”  
 판수 씨가 말은 그렇게 해도 ㉠똥면 날아갈까, 만지면 깨질까 장군을 끔찍이도 아끼고 귀여워했다.

- ① 왕과 왕비는 하나뿐인 공주를 금지옥엽처럼 떠받들었다.
- ② 구슬도 꺾어야 보배라지.
- ③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 ④ 애지중지 키운 소를 놈들에게 빼앗겼다.
- ⑤ 금이야 옥이야 키운 아이가 무사히 학교를 졸업했다.



## 독서 후 독후활동지\_ ②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 1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애야, 어서 물속으로 들어가! 깊이깊이!” 꽃님이가 가쁜 숨을 쉬기 위해 등을 슬쩍 내미는 순간, 커다란 철선에서 뭔가 폭발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작살 대포였다. 쿵! 꽃님의 몸속 깊은 곳에서 큰 충격과 함께 천둥이 울렸고, 온몸이 돌덩이처럼 뻗뻗하게 굳는 듯했다. 곧이어 몸속에서 또 한 번 불덩어리 같은 게 터졌고, 꽃님은 힘없이 축 늘어졌다. (중략) “어서가, 어서, 얼른 달아나란 말이야…….” 삐딱이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늘 장난만 치고 삐딱하게 굴던 삐딱이였지만 이번만큼은 엄마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

(나) “뭐야, 저번에 봤던 왕재수잖아!” 하지만 그새 꽃님의 눈에 콩깍지라도 씌웠는지, 수컷의 너털너털한 지느러미와 따개비가 떨어져 나간 버짐 같은 자국, 여기저기 바위에 북북 긁힌 자국 까지도 무슨 훈장처럼 근사해 보였다. 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가가 몸을 맞대고 사랑을 나누었다. 덩치가 집채만 한 두 마리 고래의 아름다운 춤에 파도가 부드럽게 일렁였고, 온 바다가 넘실넘실 함께 춤을 추었다. 그 뒤로 둘은 무엇이든 함께하고 어디든 함께 다녔다.

(다) ‘마지막으로 너를 만나서 다행이야.’ 삐딱이는 다시 먼 여행을 떠나기에 자신이 너무 늦고 지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무사히 여행을 마치더라도, 사나운 범고래 무리에게 온몸을 뜯기고 말 것이다. 소년을 다시 만난 순간 삐딱이는 결심을 굳혔다. 비록 슬픈 기억으로 가득한 고향 바다였지만, 이곳은 어머니와 별꽃과의 좋은 기억이 묻힌 곳이기도 했다. 삐딱이도 어머니와 별꽃의 마지막 숨결이 깃든 이곳 고향 바다에서 잠들고 싶었다. 늙어 버린 소년은 삐딱이의 마음을 이해한 듯했다. ㉠그렇게 삐딱이는 자신의 마지막 숨을 장군에게 맡겼다.

(라) 삐딱이는 끌려가는 별꽃의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삐딱이는 급히 몸을 돌려 달꽃부터 찾았다. 어미가 작살에 끌려가는 모습을 본 달꽃은 너무나도 큰 충격에 어쩔 줄 몰라 몸이 퐁퐁 얼어붙어 있었다. 삐딱이는 겁에 질린 달꽃을 다그쳐 해안가 반대 방향으로 떠밀었다. 그러고는 오래전 별꽃이 일러 준, 암초 가득하고 안전한 곳으로 달꽃을 이끌었다.

1) (가)~(라)에는 꽃님과 아들 삐딱이, 삐딱이와 별꽃, 삐딱이와 딸 달꽃의 이동 과정이 무작위로 섞여 있습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적어 보세요.



2) (다)에서 삐딱이가 ㉠과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 독서 후 독후활동지\_ ③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 2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늘 걱정 가득한 꽃분 씨에게 판수 씨가 손사래를 쳤다. “그런 말 마소. 갓난쟁이까지 생겨서 입 하나가 더 늘었는데.” 어느새 돌이 지난 장군은 방금 기저귀에 똥 한 무더기를 누고는 뻑뻑거리며 울었다. ㉠“똥 놈의 똥을 저리 많이 누노? 볼 때마다 순 똥질인가라.” 판수 씨가 말은 그렇게 해도 불면 날아갈까, 만지면 깨질까 장군을 끔찍이도 아끼고 귀여워했다. ㉡“이그, 똥싸개!”, “밥도 많이 쳐묵는다아이가!” 이렇게 구박하는 건 언제나 일군과 이군, 두 형제였다. 장군이 태어난 뒤로 심부름만 늘고 엄마와 영순 누나에게 꾸지람을 듣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나) 새끼 고래의 눈은 까만 달 같았다. 세상에 것처럼 깊고 고요한 눈이 또 있을까? 그야말로 가장 맑고 천진한 눈빛이었다. 판수 씨는 장군이 갓 태어나 처음으로 눈을 맞추던 때를 떠올렸다. “하나, 둘…….” 배가 어미 고래와 오 미터쯤 되는 곳에 이르렀을 때, 포수는 다리에 잔뜩 힘을 주고 작살을 든 팔을 한껏 들어 올렸다. “어이쿠!” ㉢포수가 작살을 내리꽂으려는 순간, 포수의 다리를 붙잡고 있던 판수 씨가 제 몸을 핵 비틀며 비명을 질렀고 독은 바닥으로 나동그라졌다. 포수의 작살은 엉뚱한 곳으로 빛나가고 말았다.

1) (가)에서 똥을 찐 갓난아이 장군이를 두고 가족들은 ㉠와 ㉡처럼 반응합니다. ㉠와 ㉡의 대화에 담긴 감정을 다음 빈칸에 적어 보세요.

①	㉠에서 판수 씨의 감정	
②	㉡에서 일군과 이군의 감정	

2) (나)에서 위기에 빠진 귀신고래 삐딱이를 보고, 판수 씨는 ㉢과 같이 행동합니다. 판수 씨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와 그 목적을 정리해 보세요.

①	이유	
②	목적	



## 독서 후 독후활동지\_ ④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 3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와아, 고래 깨진다!” 모여든 사람들이 탄성을 내뿜었다. 잿빛의 두툼한 고래 살갓이 갈라지면서 속살이 흰히 드러났다. 곱디고운 복숭아 빛깔이었다. 해부장이 칼을 몇 번 휘둘러 큰 조각으로 나눈 뒤 여러 일꾼들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내렸다. 그러자 아래쪽에 있던 일꾼들이 큰 조각을 작게 자르기 시작했다. 집채만 한 고래는 점점 무너져 내려 흥측하게 변해 갔고, 몸속 내장은 바닥에 축축 쏟아져 내렸다. ㉠장군의 입으로 뭔가 짹짹한 게 흘러 들어왔다. 온종일 훤아 먹던 콧물 맛이 아니었다. 그보다 좀 더 멍멍하고 단맛도 덜한 게, 저도 모르게 흐르던 눈물이었다.

(나) “아버지요, 인자 고래 잡지 마이쇼!” “무슨 썰데업는 소리고. 내가 고래 잡나? 왜놈들이 잡지! 나도 뭐 고래배 타고 싶어 타는 거 아이다.” 실은 판수 씨도 내내 신경이 쓰였다. 고래가 잡혀 올라올 때마다, 특히 모성애가 유별나다는 귀신고래가 붙잡힐 때마다 왠지 죄를 짓는 것만 같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더구나 해체장으로 끌려와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고래를 볼 때면 차마 안타까워 눈을 질끈 감곤 했다. 아버지 말에 장군은 콧김을 씩씩 내뿜었다. ㉡“아버지가 고래를 척척 찾아 주니까 일본 놈들이 막 잡는다아입니까!” ㉢“짜스! 인마가 인자 다 컷는갑다. 장군아, 아버지가 고래를 안 찾으면 우리 식구는 뭘 먹고 사노? 아버지가 배를 타야 내년에 니도 핵교를 땡기는기라.”

1) (가)의 밑줄 친 ㉠에서 장군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

2) (나)의 밑줄 친 ㉡와 ㉢의 대화에는 환경 보호론자와 환경 개발론자의 입장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상황을 토대로 장군리와 판수 씨를 각각 환경 보호와 환경 개발의 대변자로 내세워, 그들의 입장을 정리해 보세요.

㉡ 장군이 : 환경 보호론자	↔	㉢ 판수 씨 : 환경 개발론자
①		②



## 독서 후 독후활동지\_ ⑤ 사고력, 표현력 기르기 1

※ 『돌아와, 귀신고래야!』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한반도 땅에 연오라는 사내와 세오라는 여인이 살았어. 둘은 서로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는 부부였지. 어느 날 바닷가로 나온 연오가 미역을 따고 있었는데, 웬 커다란 바위가 동실 동실 떠내려오는 거야. ㉠“거참 신기한 바위로군.” 연오가 그 신기한 바위에 훌쩍 올라타자, 바위가 저절로 움직이더니 먼바다까지 둥둥 떠내려가서 어느 섬나라에 닿았어. 섬나라 사람들은 바위를 타고 온 연오를 왕으로 모셨지.

(나) “할아버지, 그 돌피리 또 불어 주세요.” “피리 불면 진짜로 고래가 나타나요?” 올망졸망한 손주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할아버지 손가락을 쥐고 흔들며 졸랐다. “하모, 이 돌피리를 불면 구신고래들이 구신같이 알아듣고 올까. 이기 고래 소리랑 비슷하거든. 할배가 한번 불어 보게, 들어 봐라. 휘익, 휘익!” 장군의 피리 소리는 아주 높이, 또 멀리 퍼져 나갔다. “자, 느그들도 한번 불어 보그라.” (중략) “잘했네, 잘했데이!” 장군은 손녀의 등을 톡톡 두드려 주었다. ㉡그때, 멀리 수평선 가까이에서 집채만 한 귀신고래 두 마리가 물 위로 높이 솟구쳤다. 귀신고래들은 서로 춤을 추듯 수면 위로 천천히 헤엄을 치며 숨구멍으로 푸우푸우 물을 뿜어 올리다 금세 모습을 감추었다. 고래가 사라진 자리에는 아주 크고 눈부신 무지개가 하늘 높이 피어올랐다.

1) (가)는 암컷 고래 별꽃이 뼈딱이에게 들려준 옛날이야기입니다. 별꽃이는 ㉠에서의 바위가 실은 귀신고래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처럼 전래동화에는 인간들에게 도움을 주는 동물이 자주 등장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연오랑과 세오녀』 외에 동물이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전래동화를 세 가지 이상 적어 보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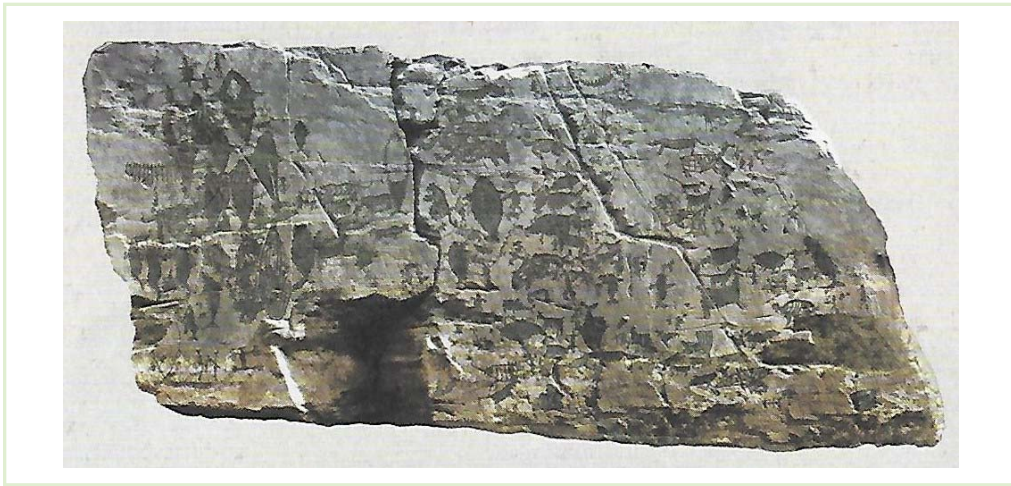
2) 이 책에는 꽃님으로부터 달꽃의 새끼 고래까지 4대에 걸친 귀신고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나)의 밑줄 친 ㉡에 나타난 달꽃과 달꽃의 새끼 고래는 이후에 어떤 모험을 했을까요? 자유롭게 상상하여 적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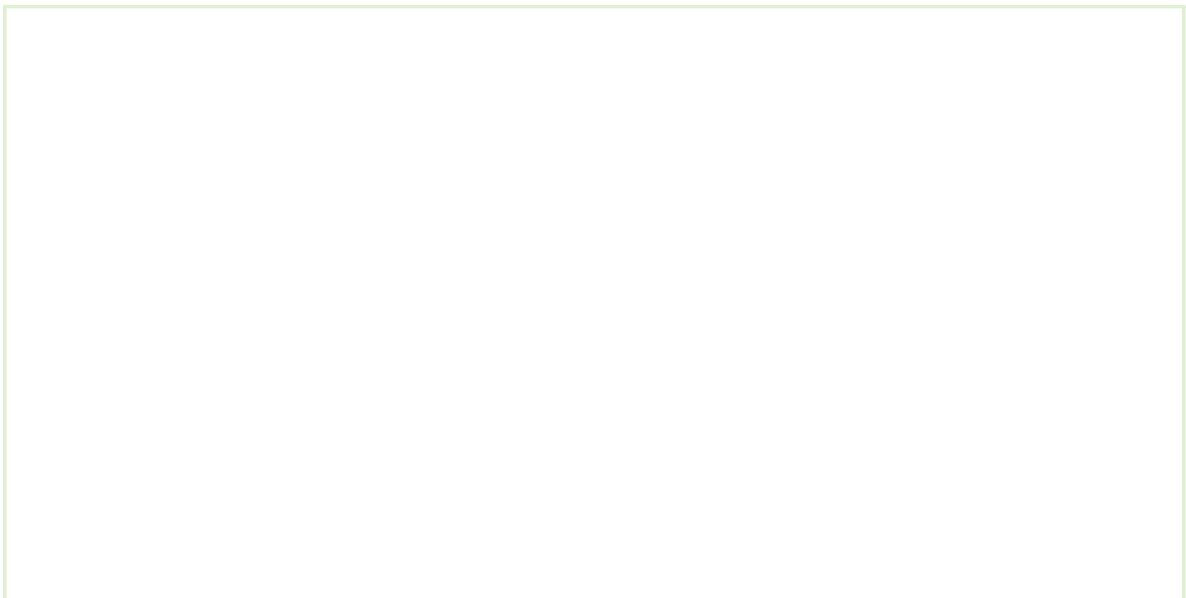


## 독서 후 독후활동지\_ ⑦ 사고력, 표현력 기르기 3

※ 아래 사진은 기원전 7천 년 전의 암각화(국보 제285호)입니다. 고래와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록인데요. 여기에는 범고래, 향고래, 흑등고래, 귀신고래 등 여러 종류의 고래와 함께 호랑이, 사슴, 멧돼지 등 다양한 동물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 살았던 신석기인이 동물 뼈로 작살을 만들어 고래 사냥을 하던 모습이 아주 생생하고도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암각화처럼 현재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2020년의 생태계를 아래 빈칸에 자유롭게 그려 보세요.





『돌아와, 귀신고래야!』 정답과 해설

<p>1쪽 어휘력 기르기</p>	<p>1) ①-㉠ / ②-㉡ / ③-㉢ / ④-㉣ / ⑤-㉤ 2) ①, ④, ⑤</p>
<p>2쪽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1</p>	<p>1) (나) -&gt; (가) -&gt; (라) -&gt; (다) 2) (예) 나이를 많이 먹고 쇠약해져 죽음을 앞둔 삤딱이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보다는 엄마 꽃님이와 아내 별꽃이의 추억이 가득한 고향 바다 동해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었다.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나타나 도와준 장군이, 유일하게 신뢰하는 인간인 장군에게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부탁한 것이다.</p>
<p>3쪽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2</p>	<p>1) (예) ① : 귀여워서 어쩔 줄을 모름, 사랑.           ② : 질투, 질시, 동생이지만 미움. 2) (예) ① : 새끼 고래 삤딱이의 눈빛이 마치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 장군의 눈빛처럼 보였다. 살려고 발버둥치는 꽃님과 새끼 고래 삤딱이를 마치 자신과 아들 장군이처럼 여겼다.           ② : 고래 모자를 살려주려고 포수의 사냥을 방해한다.</p>
<p>4쪽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3</p>	<p>1) (예) 집채 만한 고래가 인간들에게 포획당해 죽어가는 모습이 가엾고 불쌍하고 끔찍해서 2) (예) ① : 무분별하게 고래를 잡아대다가는 곧 고래가 멸종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고래를 마구잡이로 포획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② : 고래를 잡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인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어진 자원들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p>
<p>5쪽 사고력, 표현력 기르기1</p>	<p>1) (예) 『견우와 직녀』, 『은혜 깊은 까치』, 『흥부전』, 『콩쥐 팥쥐』, 『호랑이 등에 탄 효자』 등등. 2) (예) 동해 바다에서 아빠 삤딱이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달꽃은 새끼 고래와 함께 마지막으로 동해 바다에 온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도와준 장군의 돌피리 소리를 듣는다. 장군에게 작별인사를 한 달꽃은 새끼 고래와 함께 새로운 고향 바다를 찾아나선다. 더 이상 아무도 고래들을 사냥하지 않는 안전한 바다를 향해 헤엄친다.</p>
<p>6쪽 사고력, 표현력 기르기2</p>	<p>(예) 스노클링을 할 때 해양생물 보호하는 방법 1. 산호초를 만지지 말고 눈으로만 즐기기 2. 바닥에서 모래를 휘젓지 말기 3. 산호초를 채취하지 말기 4. 물고기에게 먹이 주지 말기 5. 물고기들을 쫓아가지 않기 6. 해양 생물에게 해로운 성분이 들어 있는 선크림이나 화장품을 바르지 않기 7. 바다 속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기</p>
<p>7쪽 사고력, 표현력 기르기3</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예시답안)</p> <p style="text-align: right;">(이미지 출처: 사이언스올)</p>